

음란출판물 접촉과 청소년의 성관련 태도 및 비행간의 관계*

박윤창 김근영 윤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음란물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심리학적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음란출판물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음란출판물 접촉 수준에 따른 성관련 태도의 차이 및 비행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청소년기 위험행동추구의 강력한 동기적 구인인 '자극추구 동기'와 음란물접촉수준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남자 고등학생 64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음란물 상습접촉 집단은 타집단에 비해 성애적 사랑중심의 사랑관 및 가부장적 성역할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행경향성도 높았다. 또한 자극추구동기 및 이의 하위요소는 모두 음란출판물 접촉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아동기에서 벗어나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는 성욕구의 잠재기로부터 벗어나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 청소년들은 특히 이성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동경을 가지며 성적(性的)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이의 해결이야말로 필수적인 청소년기 발달과업중의 하나이다.

청소년기가 이렇듯 개인의 발달단계중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진행된 청소년기 성관련 연구들은 몇몇의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으며(정원식, 1985;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1988,

1991), 구체적으로 성관련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또는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성(性)'이라는 주제를 무조건 금기시(禁忌視)해온 우리사회의 전통과도 관련있는 문제이나, 청소년의 성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때 청소년 성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의 몇몇 연구들에서도 외설출판물이 청소년기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문제제기의 수준에 머문 경향이 있는데, 이는 '외설물'이라 정의할 수 있는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5년 미 법무성이 구성한 '외설물 조사위원회'의 보고 결과(1986)에 있어서도 몇가지 명확한 외설물(예, 어린이용 포르노물, 명백한 성폭력물)을 제외하고는 조사위 의원들간의 많은 실전이 오고갔다.

이러한 논란은 심리학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대표적인 세가지 상반된 입장은 크게 정화가설로 대표되는 정신분석학적 접근, 학습이론의 하나인 사회화학습이론, 그리고 최근 두드러지게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는 사회인지적 관점등이다.

심리학계에서도 가장 낙관적인 견해라 할 수 있는 정화가설은 흔히 '수압설'로도 불리는데, 성적 본능이나 공격본능은 하나의 에너지(action-specific energy)의 형태로서 인간내부의 저수조에 저장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에너지는 생래적 방출기제(innate releasing mechanism)에 의해 통제되는데, 이 방출기제를 외부의 해발자극(解發刺激: key stimuli)이 잡아당김으로써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어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행동(fixed action pattern)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정화가설에 따르면, 이러한 에너지는 축구시합을 한다거나 TV에서 살인 사건을 보는 등의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도 발산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음란출판물을 보는 것 역시 인간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성적 에너지를 발산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화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피험자의 인격에 모욕을 가함으로써 좌절과 정서적 유발을 일으키는 "모욕실험"에 따르면, 실제적인 공격행동이 아닌 환상적인 공격은 어느정도 에너지를 해소시키는 하나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Feshbach, 1965). 더 나아가 많은 연구 결과들은 정화가설을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격에너지가 더 증가하는반대효과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화이론과 반대되는 이론들이 사회화학습이론이나 사회인지이론이라 할 수 있다. 사회화

습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행동의 관찰은 주어진 상황에 행동해야 할 하나의 모범이나 실례로서 작용하여 미래에 개인이 행하게 될 적절한 형태의 행동과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Bandura, 1965, 1971, 1973). 실제로 모델링의 효과는 공격행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경험적 지지를 받고 있다(Eisenberg, 1980; Leyens, Herman, & Dunand, 1982; O'Neal, McDonald, Cloninger, & Levine, 1979).

또 최근 연구가 활발한 사회인지이론은 모델링의 효과에 기억 및 인지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데, 역시 음란출판물의 효과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특히 Berkowitz(1984)는 Collins와 Loftus(1975)의 가설에 기초하여 점화가설(Priming Hypothesis)을 세웠는데,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본 내용에 대해 직접 반응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에 따라 반응하며 따라서 여기에는 기억이 개입하게 된다. 즉, 관찰 학습이 전달매체에서 제시된 특정한 행동의 학습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반면, 인지적 접근에서는 관찰된 행동은 그것과 관련된 생각, 정서 등을 활성화 시켜 결국 전혀 다른 형태의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Phillips(1983)와 Phillips와 Hensley(1984)는 1973-1978년 사이의 프로 권투시합 전국 TV중계 후 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공격행동인 살인율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모방학습이나 모델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전달매체에서 본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주는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 개인이 반응한다는 설명이 더 적절함을 시사해 준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묘사된 사건은 의미적으로 관련된 행동이나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점화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점화효과 혹은 사회인지적 관점은, 비폭력적인 음란출판물이나 평범한 누드화 등도 폭력적 음란출판물과 같은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음란출판물과 청소년발달

이러한 심리학적 이론들은 모두 폭력물이나 음란출판물이 청소년발달에 정적 혹은 부적으로 영향을 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다수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국내연구들(박운창, 이미경, 윤진, 1995; 범희백서, 1992; 이미경, 1995)은 음란출판물의 효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음란출판물이 직접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존에 축적되어온 성관련 태도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음란출판물 접촉이 줄 수 있는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들은 이미 여러곳에서 시사되어 왔다.

예컨대, 사랑의 차원에 대한 연구(Lee, 1976)에 따르면, 사랑은 일반적으로 크게 성애적 사랑(eros), 유희적 사랑(ludus), 우애적 사랑(storge)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며, 이차적 유형으로서 광적 사랑(mania), 실용적 사랑(pragma), 헌신적 사랑(agape)의 총 6가지의 사랑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여기서 음란출판물과 관련되어 주목해야 할 측면은 성애적 측면의 효과이다. 즉, 음란출판물이 실제로 여성의 육체만을 강조하며, 남자 청소년들에게 여성을 평가하는 차원을 육체만으로 국한시키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이를 탐독하거나 관람하는 청소년들의 사랑에 대한 태도 역시 성애적 사랑 측면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이러한 사랑에 관한 태도뿐만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주는 영향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흔히 음란출판물 등에서 묘사되는 여성은 그저 남성을 즐겁게 해주는 성적 도구일 뿐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묘사되는 음란매체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자주 접함으로써 전통적인 남성위주의 성역할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 이러한 관념의 변화는 심리적으로 둔감화효과(Linz, Donnerstein, & Penrod, 1988)로서 설명된다.

자극추구 동기와 음란출판물접촉

그렇다면 어떤 청소년들이 음란출판물을 보고자 갈망하는가? 그 원인은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자극추구동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Zuckerman(1979)은 자극추구행동을 '진기하고 복잡한 자극/경험에 대한 욕구이며 그러한 경험을 위하여 신체적,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요인분석에 의하면 자극추구행동은 크게 4가지 차원으로 세분된다. 첫번째 요인은 드릴과 모험추구 행동 (Thrill and Adventure Seeking)으로써 스포츠나 스피드와 위험을 내포하는 다른 활동들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함한다. 두번째 요인은 경험추구(Experience Seeking)로서 마음이나 감각, 여행, 비동조적인 생활양식 등을 통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번째 요인은 금지해제(DiSinhibition)인데 이는 주연(酒宴), 파티, 성상대를 여러 명 갖고자 하는 것등을 표현한다. 마지막 요인은 권태민감성(Boredom Susceptibility)인데, 이는 반복적인 것, 틀에 박힌 일, 우둔한 사람등을 싫어하는 성향과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등을 나타낸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드릴과 모험추구행동은 사회적으로 지향된 형태의 감각추구이지만, 금지해제와 경험추구행동은 사회병리적 형태의 감각추구 행동으로써 비동조성 및 충동성과 강한 연관을 보인다. 또한 자극추구동기는 다른 심리적 구인과 높은 관련성을 갖고있다. 즉, 자극추구동기가 높은 사람은 외향적이며,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비동조적이며 덜 불안해한다(Zuckerman & Link, 1968). 또한 약물, 음주행동, 범죄 등과

같은 많은 문제 행동들은 자극추구행동과 관련되어 있다(White & Labouvie, 1985).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이 쌓여감에 따라, 자극추구행동은 다양한 행동들에 대한 중요한 설명적 구인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극추구동기와 다른 행동들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성관련 문제에 큰 원인을 제공한다고 알려진 음란출판물과 청소년기 성관련 태도간의 관계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이러한 음란출판물접촉과 청소년비행의 관련성을 알아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극추구행동'이라 통칭되는 청소년기 특징적 위험행동이 음란출판물접촉에 기여하는 기제도 밝혀보고자 한다.

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자.

피험자는 서울 강남구 H 고교 1, 2학년생 156명, 영등포구 Y 고교 1, 2학년 학생 189명, 도봉구 P 공교 1, 2학년 학생 137명,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P 고교 1, 2학년생 165명 등 총 647명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16.55세 (SD=.79) 이었다.

조사도구

조사도구로는 일단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알아보기 위한 몇가지 실태조사와 더불어 다음의 심리학적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사랑에 대한 태도 사랑에 대한 태도는 Hendrick과 Hendrick (1986)이 개발한 사랑 척도(Love scale)를 번역해서 사용하였다. 척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앞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42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요인 분해법 (PAF: Principal Axis Factoring)결과

고유근 (eigen value)이 1.0이 넘는 요인은 4개가 확인되었으며, 여기에서 요인 1은 원칙도 상에서 헌신적 사랑에 해당되는 문항 6개와 광적 사랑에 해당되는 2문항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광적 사랑에 해당된 문항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집착과 관련된 문항들로서 이 요인에 묶인 문항들은 모두 상대방의 안위와 복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을 '헌신적 사랑'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원칙도상의 우애적 사랑에 해당되는 7개의 문항중 4개의 문항이 추출되어 이를 다시 '우애적 사랑'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요인 3에는 원칙도에서 성애적 사랑으로 구분된 7개의 문항 모두가 묶였으므로 '성애적 사랑'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에는 실용적 사랑에 해당되는 5문항과 유희적 사랑에 해당되는 1문항이 묶였다. 이중 유희적 사랑에 해당된 1개의 문항은 상호간 관계의 형평성에 관련된 것으로 사랑의 유익성을 고려하는 실용적 사랑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요인 4는 '실용적 사랑'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1점)~"정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헌신적 사랑이 .81, 우애적 사랑이 .78, 성애적 사랑이 .72, 실용적 사랑이 .60이었다.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arin과 Tibly(1978)이 개발한 '성역할 관념 척도'(Sex-role Ideology Scale)를 번역해서 사용하였다. 척도문항간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척도의 30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은 3개가 확인되었는데, 그중 요인 1은 주로 가부장적인 남성역할과 여성의 모성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을 '전통적 성역할 차원'이라고 명명했다. 요인 2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생활에 관련해 들간의 평등성이나 불평등성에 관해 언급한 5개의 문항들로 이루어

어져 있었다. 여기서 둘간의 평등성을 강조한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통계적으로 변환되어 모두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들이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사회적 성역할 차원'이라고 명명했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사회생활과 성생활에 있어 여성의 순종적 역할을 강조하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었는데, 이 요인은 '순종적 차원'이라고 명명되었다. 위의 세 요인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6개 문항은 결과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1점) ~ "정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본조사에서 사용된 성역할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통적 성역할 차원이 .67, 사회적 성역할 차원이 .58, 순종적 성역할 차원이 .60로서 대체로 양호하였다.

비행척도 청소년들의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미경(1995)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비행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숨은 비행척도와 청소년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행형태를 고려한 것으로서 12문항의 공격행동과 20개의 규칙위반, 11개의 파손행동, 11개의 절도, 3개의 약물남용차원 등 총 57개 문항을 포함한 5개 차원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57개의 문항 중에서 성과 관련된 비행을 묻는 7문항을 따로 추출해 '성관련 비행' 변인을 구성하여 분석에 추가하였다. 전체 척도는 5점 Likert형이었으며, Z점수 환산법을 이용하여 비행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공격행동이 .82, 규칙위반이 .90, 절도가 .86, 파손행동이 .84, 그리고 약물남용이 .67, 성관련 비행은 .71이었으며, 전체 비행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6이었다.

자극추구동기 척도 자극추구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Zuckerman, Eysenck와 Eysenck (197

9)가 제작한 자극추구척도 5판(SSS-V)을 박윤창, 이미경과 윤진(1995)이 번역·보완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1점)~ "정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모험추구행동이 .82, 경험추구행동이 .54, 금지해제가 .87, 권태민감성이 .58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8이었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중 15.6%인 96명이 성관계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16-18세에 첫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이하에서 첫경험을 한 응답자는 7명으로서 전체의 7.3%에 불과하였다. '음란잡지나 음란출판물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 응답자의 94.6%(610명)가 '그렇다'고 답해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대다수가 실제로 음란서적과 접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음란잡지 구독의 빈도에서 47.9%(292명)이 '아주 가끔 볼뿐이다'로, 37.8%(230명)이 '월 1-3회 본다'라고 대답해, 대부분의 학생은 월 1-3회 미만의 적은 빈도의 접촉을 하고 있었다. 반면, 주 1-3회 이상 보는 학생은 전체의 10.5%(6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란출판물을 처음으로 보게 된 연령대는 평균 14.07세 (SD=1.92)였으며 14, 15세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대체로 중학교 1, 2학년 시기에 처음으로 음란출판물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 음란출판물과 청소년 발달

음란출판물 접촉수준에 따라 사랑에 대한 태도, 성역할 태도, 그리고 비행 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음란출판물 접촉 여부 및 그 빈도에 따라 크게 음란출판물 접촉집단

표 1. 음란잡지 구독 경험 및 빈도

		사례수 (%)
음란잡지 구독경험		
있	다	610 (94.6)
없	다	35 (5.4)
음란잡지 구독 빈도		
	거의 매일 본다	23 (3.8)
	주 1-3 회 본다	64 (10.5)
	월 1-3 회 본다	230 (37.8)
	아주 가끔 볼뿐이다	292 (47.9)

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일단 음란서적이나 잡지를 주 1-3회 이상 보는 집단을 '상습접촉 집단'으로, 음란서적을 접촉해 본적이 없다고 답한 집단을 '비접촉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나머지 집단은 '보통접촉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의 사례수는 각각 상습집단이 84명, 보통집단 507명, 그리고 비접촉집단이 33명으로서, 정상집단을 가정하였을 때 정상분포 곡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 음란출판물 접촉에 따른 사랑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음란출판물 접촉집단간의 사랑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따르면 사랑척도의 4개 유형(헌신적 사랑, 성애적 사랑, 우애적 사랑, 실용적 사랑)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애적 사랑의 경우 상습접촉집단이 보통접촉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음란출판물의 대부분이 성애적 사랑을 다루고 있음을 고려할때 예상된 결과였다.

2) 음란출판물 접촉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변화

성역할 척도의 요인분석결과 구분된 3가지 요인(전통적 성역할 태도, 여성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복종에 대한 태도)이 음란출판물 접촉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따르면 상습접촉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F_{635,2}=2.97, p<.05$). 성역할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성역할을 가진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았을때, 상습접촉 집단의 경우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적 측면에 대해 다른 집단보다 남성중심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 척도상에서는 단지 사회활동적 측면에 대해서만 차이가 나타났지만 전체 성역할 태도를 분석한 결과 경계선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음란출판물에 더 많이 접촉하면 할수록 성역할태도가 남성 중심적인 전통적 성역할 태도 점수가 높았다.

표 2. 음란물 접촉정도와 사랑유형에 대한 관계

	상습접촉집단	보통접촉집단	비접촉집단	F
헌신적 사랑	3.21	3.20	3.41	1.14
우애적 사랑	3.36	3.43	3.71	1.80
성애적 사랑	3.46 ^a	3.24 ^b	3.31 ^{ab}	3.65*
실용적 사랑	2.41	2.44	2.54	0.50

(각 수치는 사랑척도 하위문항의 평균점수(총 5점 만점), 같은 윗첨자 알파벳은 사후검증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집단)

* $p < .05$

표 3. 음란물 접촉 수준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

	상습접촉집단	보통접촉집단	비접촉집단	F
성역할 태도 전체	3.01	2.87 ^a	2.76 ^a	3.00*
전통적 성역할	3.59	3.57	3.39	1.24
여성의 사회활동	2.59	2.42 ^a	2.30 ^a	2.97*
복종적 여성관	2.86	2.61	2.57	2.10

각 수치는 성역할척도 하위문항의 평균점수(총 5점 만점), * $p < .05$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나타낸다.
 같은 윗첨자 알파벳은 사후검증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집단

3) 음란출판물 접촉에 따른 비행의 차이

음란출판물 접촉집단간의 비행경향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행종류에 대한 하위유형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Z점수화 하였다. 그 후 그 Z점수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알아보았다(표 4).

그 결과 모든 비행 하위요인에 대하여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특히 상습접촉집단의 경우 공격비행과 규칙위반, 파손행위, 성관련 비행의 4가지 하위유형에 있어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비행 경향성을 보였다. 비접촉집단의 경우 보통접촉집단과 비행경향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특히 규칙위반에 있어서 상습집단이나 보통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경향성을 보였다.

3. 음란출판물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극추구동기가 음란출판물 접촉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4가지 자극추구동기 하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5%를 고집단으로, 하위 25%를 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자극추구동기의 하위차원 모두의 수준에 따라 음란출판물 접촉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다(표 5). 즉, 드릴/모험 추구동기가 높은 집단(M=2.56, SD=.94)은 낮은 집단(M=2.78, SD=.87)에 비하여 음란출판물 접촉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t_{346}=-2.23, p<.05$), 경험추구동기가 높은

표 4. 음란물 접촉정도와 비행경향성간의 관계

비행 종류	상습접촉집단	보통접촉집단	비접촉집단	F
공 격 비 행	.16	-.02 ^a	-.08 ^a	4.14*
규 칙 위 반	.22	-.02	-.27	10.73***
절 도	.16 ^a	-.03 ^b	.02 ^{ab}	3.17*
파 손	.22	-.02 ^a	-.21 ^a	8.29***
약 물	.19 ^a	-.04 ^b	.17 ^{ab}	3.90*
성관련 비행	.24	-.03 ^a	-.20 ^a	9.77***

각 수치는 비행척도 하위문항의 평균 Z점수 * $p < .05$, *** $p < .001$
 같은 윗첨자 알파벳은 사후검증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집단)

표 5. 자극추구 수준에 따른 음란물 접촉 수준

	저집단	고집단	t
드릴/모험 추구	2.56 (.94)	2.78 (.87)	-2.23*
경험 추구	2.48 (.93)	2.80 (.89)	-3.61***
금지해제	2.45 (.82)	2.88 (.92)	-4.78***
권태 민감성	2.51 (.91)	2.77 (.95)	-2.65**

각 점수는 평균점수(총 5점 만점), ()는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집단(M=2.48, SD=.93)은 낮은 집단(M=2.82, SD=.89)에 비하여 음란출판물 접촉점수가 높았다. 또한 금지해제 차원과 권태민감성차원에 따라서도 음란출판물 접촉 수준이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극추구동기가 높을수록 음란출판물 접촉 수준이 높았다.

위에서 살펴본 자극추구동기 외에 어떠한 변인들이 음란출판물 접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 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은 자극추구동기, 음란출판물과 처음 접촉한 나이, 음란출판물에 접촉하는 이유, 사회경제적 지위(SES), 학교성적, 종교의 유무였다. 이중 음란출판물에 접촉

이유를 묻는 문항은 유목변인이었기 때문에 이를 가변인(dummy variable)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각의 보기를 하나의 문항으로 설정한 후 그 보기를 택한 경우는 '2점', 택하지 않은 경우는 '1점'을 부여하였다.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따르면 음란출판물 접촉 수준은 자극추구동기의 하위척도 중 드릴/모험 추구 차원을 제외한 다른 3가지 하위척도와는 매우 상관이 높았다. 또한 처음 접촉시기와 매우 높은 부적 상관을 보여, 어린 시기에 음란출판물을 보게 되면, 접촉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6.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드릴/모험추구	경험추구	금지해제	권태민감성	첫접촉시기	이유 (호기심)	이유 (욕구해소)
드릴/모험	1.0000						
경험추구	.3567***	1.0000					
금지해제	.0929*	.3336***	1.0000				
권태민감성	.1145**	.3118***	.2609***	1.0000			
첫접촉시기	-.1230**	-.0945*	-.0691	-.0391	1.0000		
이유-호기심	-.0517	-.1049*	-.1426***	-.0771	.2300***	1.0000	
이유-욕구해소	.0686	.0716	.1557***	.1006*	-.1419***	-.4337***	1.0000
이유-스트레스	.0263	.0374	-.0131	-.0480	-.0475	-.3493***	-.3152***
사회경제적지위	.0557	.0156	-.0173	-.0068	-.0037	.0154	.0398
학업성적	-.0894*	-.1223**	-.1020*	-.1587***	.0037	.0183	-.0660
종교유무	.0132	-.0210	-.0196	.0141	-.0162	-.0350	-.0317
음란물접촉	.0566	.1562***	.1912***	.1385***	-.3043***	-.2151***	.3542***

표 6 계 속

	이유 (스트레스해소)	SES	학업성적	종교유무	음란물 접촉
이유-스트레스	1.0000				
SES	-.0239	1.0000			
학업성적	-.0272	.1534***	1.0000		
종교유무	-.0211	.0796*	-.0789*	1.0000	
음란물접촉	.0533	.0421	-.0693	-.0099	1.0000

* p < .05, ** p < .01, *** p < .001 (양방검증)

이 변인들이 상호간의 관계속에서 음란출판물 접촉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란출판물의 접촉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성적욕구 해소를 위해 음란출판물을 보는 경우이다(전체변량의 11.6%를 설명: $R^2=.1167$, $F_{1,542}=71.64$, $p<.001$). 두번째 변인으로는 처음 음란출판물을 보았던 시기로, 약 6.7%의 변량을 설명한다($\Delta R^2=.0668$, $F_{2,541}=60.77$, $p<.001$). 세번째는 자극추구동기의 하위차원인 금지해제로써 이는 약 1.9%의 설명력을 지닌다($\Delta R^2=.0193$, $F_{3,540}=45.79$, $p<.001$). 그 이외에 권태민감성, 호기심 또한 음란출판물의 접촉수준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외설물 접촉실태와 성과 사랑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조사하였다.

우선, 음란출판물 접촉실태를 살펴보면 95% 가량의 청소년들이 음란출판물을 보았던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14.3%는 주 1-3회 이상 거의 매일 보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음란출판물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처음으로 음란출판물에 접하게 되는 시기가 매우 이르다는 사실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적어도 중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때에 처음 음란출판물에 접하게 된다. 심한 경우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음란출판물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러한 음란출판물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은 성관련 태도에 있어서 '성애적 사랑' 중심의

표 7. 음란물 접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 변인	R^2	ΔR^2	β	F
이유 - 성적욕구해소	.1167		.2329	71.64***
첫 접촉 시기	.1835	.0668	-.2379	60.77***
금지해제	.2028	.0193	.1086	45.79***
권태민감성	.2138	.0110	.1019	36.64***
이유 - 호기심 때문	.2228	.0090	-.1099	30.84***

*** p < .001

사랑에 대한 태도 및 가부장적 성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의 비행척도에 있어서도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음란출판물이 청소년발달에 있어 해로운 역할을 한다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Berkowitz(1984)등이 꾸준히 주장해온 '점화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와같은 음란물 자극이 주는 점화효과를 비롯한 인지이론적 접근과 실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음란출판물 접촉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일단 성적욕구 해소에 대한 기대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특히 자극추구동기의 하위수준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음란출판물이 이들의 자극추구동기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Zuckerman(1979)의 자극추구행동이론이 특히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과 조합을 이루어 이 시기의 음란물 접촉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미흡한 점이 몇가지 남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한단계 높은 추후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랑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사랑척도와 Karin과 Tibly(1978)의 성역할 태도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의 문항들은 서구사회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문화나 실정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타당도 측면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다 정밀한 새로운 도구의 개발과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연구 이외의 기초적인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음란출판물 접촉 수준에 따라 성태도, 성행동, 사랑에 대한 태도, 성역할 태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경향만을 밝혔을 뿐이다. 즉, 이것이 음란출판물 접촉의 순수한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심리적 구인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인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엄격한 조건통제를 가한 후 실험실 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 접촉에 따른 사랑 및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변화가 이후 발달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에 의해 추론했을뿐 확실한 검증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는 성인초기 '친밀감' 및 '고립'의 개념과 관련시켜 이러한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반구조적 면접법(semi-structured interview)을 사용하여 회고적인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대검찰청 (1992). 범죄백서. 서울: 대검찰청.
- 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5).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2(1), 53-64.
- 이미경 (1995). 충동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 (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한국 갠럽조사 연구소 (1988).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 한국 갠럽조사 연구소 (1991). 91 MBC 청소년 백서. 문화방송
- Attorney General's Commission on Pornography (1986). *Final Report*.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Bandura, A. (1965). Influence of models' reinforcement contingencies on the acquisition of imitative responses.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589-595.
- Bandura, A. (1971). *Social learning theory*. NY : General Learning Press.
- Bandura, A. (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erkowitz, L. (1984).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 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 a cognitive-neoassociationist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 410-427.
- Collins, A., & Loftus, E. (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memory. *Psychological Review, 82*, 407-428.
- Eisenberg, G. J. (1980). Children and aggression after observed film aggression with sanctioning adult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347*, 304-318.
- Hendrick, C. & Hendrick,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92-402.
- Karin, R., & Tibly, P.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x-Role Ideology Scale. *Psychological Report, 42*, 731-738.
- Leyens, J. P., Herman, G., & Dunand, M. (1982). The influence of an audience upon the reactions to filmed viol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31-142.
- Linz, D., Donnerstein, E., Bross, M., & Chapin, M. (1986). Mitigating the influence of violence on television and sexual violence in the media. In R. Blanchard (Ed.), *Advances in the study of aggression* (Vol. 2, pp.165-194). NY : Academic Press.
- O'Neal, E. C., Macdonald, P. J., Cloninger, C., & Levine, D. (1979). Coactor's behavior and imitative aggression. *Motivation and Emotion, 3*, 373-379.
- Phillips, D. P. (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icide :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40-354.
- Phillips, D. P., & Hensley, J. E. (1984). When violence is rewarded or punished: The impact of mass media stories on homicide. *Journal of Communication, 34*, 101-116.
- White, H. R., Labouvie, E. W., & Baltes, M. E.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delinquency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 197-211.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In H. London & J. Exner (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NY.: Wiley.
- Zuckerman, M., Eysenck, S., & Eysenck, H. J. (1979). Sensation seeking in England and America : Cross-cultural, age and sex compari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39-149.
- Zuckerman, M., & Link, K. (1968). Construct validity for the Sensation-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420-426.

The Relationships between Obscene Published Materials and Adolescents' Sexual Development

Yoonchang Park Geunyoung Kim Gene Yoo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obscene published materials on adolescents' development, and to find related psychosocial factors. 647 male high school students were administered by Zuckerman's Sensation Seeking Scale, the Love Scale, the Sex-role Ideology Scale, and the Delinquency Scale.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as three (high-, intermediate-, and low-) exposed groups re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exposure to obscene publications. Results showed that high exposure group tended to prefer the 'eros' type of love and authoritarian sex-role ideology than their counterparts, as well as to show higher delinquent tendency. It was also found that the Sensation Seeking Scale and its subscales could serve as significant predicting factors about the impact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s.